

엘레노 하트니 (Eleanor Heartney): 미술 평론가
곽 수 (SU KWAK) : 빛을 넘어 영적인 세계로
엘렌 킴 머피 갤러리 전시도록 2001

지난 1966년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 화가와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작품의 뜻을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보는 그대로입니다. 라고 했다. 그 대답 에 내재하는 실리주의는 후기 미니멀리즘 적 (Post-minimalism) 우리의 인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 그 결과로 현대의 화가와 비평가에게 미술과 영적인 것과의 연결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란 종종 힘들어하게 되었다. 현대미술사의 조류를 다 지나온 포스터 모더니즘(Post-modernism)은 풍자와 냉소를 즐기고 영적이거나 신앙에 관한 것은 유행이 지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20 세기의 위대한 미술 중에 일상생활의 무미건조함 을 초월한 보다 더 큰 의미를 찾아 제작된 작품이 많다. 피엣 몬드리안(Piet Mondrian)의 정신 학 은 영적인 기하학적 형태를 그리게 했다. 막 로스코(Mark Rothko)는 빛과 어둠의 싸움을 자기 작품의 주 소재로 삼았으며 결국 휴스턴에 있는 로스코 채플의 잊혀지지 않는 검은 그림들을 그리게 되었다. 바넷 뉴만(Barnett Newman)은 태고의 기독교 창조신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가장 완벽한 영적인 세계의 표현은 “십자가의 길” 이란 시리즈 의 작품들이다. 평론 가 헤롤드 로젠버그(Harold Rosenberg) 의 비평에 의하면 이 화가들에게는 추상적인 형태와 색상이 생명력이 있는 것들로 추상적인 생각과 장엄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화가 곽 수의 종이에 물감이 칠해진 고운 작품들은 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곽 수는 천주교인으로 자라나서 유태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천주교인이 되었으며, 고국의 불교와 샤머니즘의 전통을 잘 알고 있다. 그녀의 이런 영적인 진리에의 추구는 그녀로 하여금 빛과 색상을 통한 은유적인 방법의 가능성을 통하여 만인에게 공통되는 영적인 문제를 표현하게 한다.

오랜 기간 동안 곽 수는 “계시(Revelation) 시리즈”, “내적 인 시야(Inner Vision) 시리즈” 와 “내적인 빛(Inner Light) 시리즈” 의 작품을 해왔다. 이런 그림의 제목은 그녀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풍경과 종교와 자전적인 요소로부터 영감을 받아 제작된 이 작품들은 추상이면서 형이상학적인 영역을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곽 수는 십자가의 길에서 영감을 얻어 연작을 해 왔으며 “빛을 넘어서(Beyond Light)” 라고 명명한 시리즈는 물리학적인 빛의 한계를 넘어 영적인 표현을 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 비 물질화 시킨 형태에서 빛은 은유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이 된다.

이 작품들은 종이를 잘라내어 구성된 작품이며, 어떤 조각 은 다른 작품의 부분이기도하다. 작품 요소들마다 특이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전 작품에서 버려진 조각이 새 작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전체적으로 큰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이 시리즈에서 팍 수는 종이조각을 함께 부쳐 십자가의 길의 이야기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계되는 중심적인 이야기를 표현하는 형태를 구성한다. 그러나 작품이 완전 추상이기에 그 것은 또한 일반적인 괴로움과 상실, 그리고 죽음의 극복, 승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팍 수는 색상과 형태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한다. 시리즈의 초기 작품들은 흰색, 검은색, 회색, 갈색과 같은 중성의 색상으로 형태도 인물 같은 수직 형 이며 일상적인 현실에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시리즈가 진전되어 가자 원형이 나타나고 그 것은 생명을 주는 태양과 같은 형태로 낮과 밤을 의미한다. 후기의 작품들은 빨간색과 노란색이 강한 작품으로 이 것은 지는 태양의 자주색 빛과 모든 것을 불사르는 영적인 불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품들로 이 시리즈 전체의 뜻 즉 영적인 죽음과 새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

마지막 작품들은 폭발하는 것 같은 원의 중복으로 그 것은 구원의 환희를 생각하게 한다.

시리즈에서 마지막 작품인 “빛을 넘어서 #20 (Beyond Light #20)”는 금색의 복합 원의 중앙 원이 분리되어 나와 위로 떠 올라가는 것이 마치 물질적인 세상의 무게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표현 한 것 같다.

팍 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에서 오는 신비로운 경험에서 영감을 얻으면서도 아시아인으로서 그녀의 작품에 동양철학을 표현하고 있다. 작품들은 모두 형태와 여백의 관계 의 유희를 보여준다. 작품들은 형태를 도려낸 것이므로 형태사이로 보이는 벽은 구성의 일부분이 된다. 양성적인 형상과 음성적인 배경의 형상은 동양철학에서 말하는 인생에 균형을 이루는 음과 양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팍 수가 강조하는 벽의 배경은 또한 보이지 않는 여백이 보이는 형상과 같은 감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동양화의 산수도와 관련된 사상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팍 수의 빛에 대한 집념은 특별한 믿음의 체계를 초월한 것이다. 역사를 통하여 또한 여러 문화를 가로질러 볼 때, 질서와 혼돈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은 자주 빛과 어둠 과 의 대립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림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연구하는 팍 수는 회의적인 우리시대에 필요한 강장제를 가져다 주며, 한 때 존재했던 미술이란 사업의 본질적인 목적에 우리를 재 연결시켜 준다. 즉 그녀는 미술을 통하여 믿음과 더 큰 뜻의 추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그 과정에서 팍 수는 보이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 것만이 아닌 어떤 때는 오로지 예술로서만 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현실의 문 입을 상기시켜 준다